

11번가, 26일까지 '2022 설맞이 범국민축제'

11번가가 26일까지 '2022 설맞이 범국민축제'를 연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약 230만여 개 상품들을 최대 15% 할인가로 판매한다. 카드사 할인쿠폰(5만 원 이상 최대 5000원)을 다운로드 받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11번가 내 '범국민 설' 플래그가 붙은 상품이나, '범국민 설' 검색필터를 적용해 할인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417개사 금융정보, 하나의 앱으로 모아본다

은행·핀테크사 등 공식 서비스 시작 금융업체들, 고객 유치에 사활 걸어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는 방식 장점 자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시선도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 오후 4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33개 사업자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비자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업자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얻어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인 금융정보 보안, 업체 간 과열경쟁 등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금융정보 한데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

마이데이터는 개별 기관·기업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적금 계좌잔액, 주식 보유수량, 보험 정보, 카드 청구금액, 통신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앱을 각각 켜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앱에서 금융업무 처리할 수 있기에, 사실상 모든 금융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간 쌓아온 주거래은행과 같은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계좌이동제와 오픈뱅킹 도입 이상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마이데이터 공식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



'내 손안의 금융비서'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기대와 우려 속에 5일 전면 시행됐다. 배우 정호연이 모델로 나선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버스(원쪽)'와 안우가 아이기가 모델로 출연한 하나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나 할' CF 영상. 사진제공 | 신한은행·하나은행

리·IBK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 10개 은행,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 4개 금융투자사,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 뱅크샐러드·핀크·쿠콘·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NHN페이코·민앤지·SK플래닛·핀다 등 10개 핀테크사,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 총 33개사다. 이들 사업자들은 417개 제도권 금융사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본 허가를 획득한 54개사 중 나머지 21개사는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 허가를 받은 9개사는 본 허가 이후 인허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 긍정적 효과 기대 속에 우려의 시선 공존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신 데이터가 오가는 전용도로 개념의 API 방식이 의무화되는 게 특징이다. 스크래핑 방식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외부 기관

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긁어오는 것이다.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API방식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보 유출 등 사고 시 책임소재도 명확하며 스크래핑 방식보다 조회 속도도 빠르다.

금융권은 다방면에서 마이데이터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묶어두면서 금융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자체 데이터의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8일 100여 명의 자산 정보를 타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냈고, 일부 핀테크사는 29일 NH농협은행과 일부 금융사에 요청한 API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상 현상을 겪기도 했다.

업권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융투자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신전문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비자 정보 보호와 보안에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부장(왼쪽부터)이 CJ바이오사이언스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글로벌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목표" 레드바이오 전문 'CJ바이오사이언스' 출범

바이오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한 CJ제일제당이 4일 레드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자회사인 CJ바이오사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을 목표로, 그룹의 미래성장엔진인 웰니스(치유·Wellness) 분야 경쟁력 강화에 전격 나선 것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이 지난해 10월 약 983억 원에 인수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천랩'과 기존에 보유 중인 레드바이오 자원을 통합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 출범은 단순히 기업 이름을 바꾸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레드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미생물·균주·발효 기술에 마이크로바이옴 정밀 분석·발굴 역량 및 빅데이터를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목표는 '글로벌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비전 달성이다. 이를 위해 초격차 연구개발(R&D) 역량 확보, 바이오-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신약개발 가속화, 신규 사업의 글로벌 확장 주력 등 '다대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건, 기술수출 2건을 보유해 '글로벌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빅픽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WCG' 인수 레벨업지지·온오프 문화콘텐츠 제작 시너지 등 기대

빅픽처인터랙티브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 'WCG'를 스마일게이트홀딩스로부터 인수했다. 메타버스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 맞춰 새 e스포츠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빅픽처는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한 WCG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WCG브랜드 및 WCG(㈜)의 경영권을 100%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스마일게이트와 후원 계약도 맺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설립된 빅픽처는 종합 e스포츠 전문 회사로 온라인 e스포츠 플랫폼 서비스와 e스포츠 데이터, e스포츠 교육, 미디어 콘텐츠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스포츠 대회 플랫폼 '레벨업지지(LVUP.GG)'는 현재까지 24개 종목으로 약 1000회 대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월간 이용자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

빅픽처는 WCG 인수를 통해 레벨업지지 및 e스포츠 데이터 서비스(DAK.GG),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엠스툼)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WCG의 글로벌 브랜드 강점과 네트워크가 빅픽처의 온라인 e스포츠 노하우, 기술과 만나 혁신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광준 빅픽처 대표는 "20여 년간 대한민국이 주도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온 WCG가 전 세계 게이머들과 게임사,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빅픽처는 조만간 WCG의 새로운 운영방식과 방향성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메타모빌리티'로 이동경험 확장...현대차, CES서 미래 비전과 기술력 공개

(로보틱스+메타버스)

자동차·UAM으로 메타버스 접속 로보틱스로 모든 사물에 이동성 부여 "인류의 무한한 이동 가능하게 할 것"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모빌리티(Metamobility)' 등을 통해 인간의 이동 경험 영역을 확장하고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 2022)'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가 내놓은 로보틱스 비전은 ▲사용자의 이동 경험이 혁신적으로 확장되는 '메타모빌리티' ▲사물에 이동성이 부여된 'Mobility of Things(MoT)' 생태계 ▲인간을 위한 '지능형 로봇' 등으로 나뉜다.

'메타모빌리티'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돼 인류의 이동 범위가 가상공간으로 확장된다는 의미

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차원의 이동경험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등의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간 경계가 파괴되고 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T' 생태계는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어떤 사물에든 장착해 이동성 부여),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로보틱스 모빌리티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활용범위를 실외까지 확장) 등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능형 로봇인 로보틱스 스팟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도 함께 전시했다. 지능형 로봇은 지각 능력을 갖추고 인간 및 외부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로보틱스 기술이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라

며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모빌리티'로 확장하는 도전을 이어가겠다"며 "현대차의 로보틱스 비전이 인류의 무한한 이동과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CES2022에서 로보틱스 비전 발표를 위해 로보틱스 스팟과 함께 무대위로 등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부고

스포츠동아 김민성 차장 부친상 ▲김용종씨 별세, 김민성·봉재씨 부친상, 임자영씨 시부상=4일 대구 동산병원장례식장(동산동) 202호, 발인 6일 12시 (053)250-8451